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빌4:13)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생각을 바꾸라

여러분,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며,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실 때 환경을 먼저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생각부터 바꾸셨습니다. 모세를 쓰실 때 환경을 바꾸신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할 수 있다’는 생각부터 불어 넣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명을 말합니다. ‘팔자다’, ‘타고난 것이다’, ‘나는 원래 안 되는 사람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생각이 결과다!”(렘6:19). 하나님은 ‘행동의 결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생각의 결과’라고 하셨습니다. 행동은 생각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생각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한마디 말씀에 빛이 생겼습니다.

“땅은 생물을 내라.”

말씀대로 생명이 탄생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뜻을 세우셨습니다. 먼저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말씀으로 선포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생각과 말이 삶을 만드는 통로가 됩니다. 오늘의 내 생각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일의 인생을 향해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말 한 마디에 달렸다

생각을 바꿔 대역사를 이룬 나라가 있습니다. 두바이입니다. 황량한 사막 위에 세계 최고의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어떻게요? 한 사람의 생각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한계는 스스로 긋는 것이다.” 두바이 공항 입국장 광고판에 쓰여 있는 문구입니다. 이는 지도자 셰이크 모하메드의 생각입니다. 그 생각이 현실로 이뤄져 열사의 땅에 스키장이 들어서고, 골프장이 만들어지고, 인공섬이 생기고, 세계 최고층 빌딩이 세워졌습니다. 생각이 환경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생각 때문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열두 정탐꾼이 가나안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열 명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반드시 올라가 이길 수 있다.” 똑같은 가나안을 보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똑같았습니다. 다른 것은 ‘생각과 말’이었습니다. 열 명은 눈에 보이

는 현실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말했습니다. 결국 현실을 보고 부정적인 말을 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생을 마쳤고, 약속을 붙든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과테말라 집회에 갔을 때, 말 타는 법을 배웠습니다. 집회를 도왔던 어느 재벌이 집으로 초대했는데, 집이 무려 300만 평이나 되었습니다. 그 안에 사냥하는 코스가 있었는데, 그러려면 말을 타야 합니다.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런데 말을 타면서 하나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은 기수가 고삐를 당기는 쪽으로 방향을 튼다는 것이었습니다. 동일합니다.



총회장 이초석 목사

다. 사람은 자신이 반복해서 생각하고 말하는 방향으로 살아갑니다. 즉 말(馬)이 수레를 끌고 가듯, 말(言)은 인생을 끌고 갑니다. 기수가 어느 쪽으로 말고삐를 당기느냐에 따라 말이 방향을 달리하듯,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불평 쪽으로 당기면 불평의 땅으로, 감사 쪽으로 당기면 감사의 땅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잠18:21).

가룟 유다가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판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마음속에 탐욕의 생각을 품었으며, 그게 안 되자 ‘예수를 팔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 행동으로 이어져 예수님을 은 삼십에 판 것입니다. 예수를 판 것은 손이 아니라 먼저 생각이었습니다(요13:2).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핵폭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무서운 것은 ‘핵폭탄을 만들겠다’는 생각입니다. 모든 발명은 생각에서 시작되었고, 모든 전쟁

도 생각에서 시작되었으며, 모든 범죄도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반대로 모든 위대한 역사와 기적도 한 사람의 믿음의 생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김유신 장군은 어머니와 약속했습니다. 다시는 천관녀를 찾지 않겠다고. 그런데 어느 날 피곤하여 말 위에서 잠깐 졸았는데, 눈을 떠보니 천관녀의 집 앞이었습니다. 말이 오랫동안 다니던 습관대로 천관녀의 집으로 데려다 놓은 겁니다. 잠에서 깨어난 김유신은 깨달았습니다. “습관은 생각보다 강하구나.”

그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사랑하던 말의 목을 베어 버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습관을 깨뜨려야 합니다.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안 된다.”, “힘들다.”, “나는 못한다.”, “빌어먹을~”, 이런 말을 끊어야 합니다. 잘못된 언어 습관을 베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와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리라”(사55:8-9).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막9:23). 바울도 말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4:13).

그리고 바울은 이어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롬12:2).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안다면 우리가 지금처럼 함부로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면 우리 생각과 말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리라는 생각이라”(렘29:11).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애절하건만, 왜 우리 삶은 이 모양일까요? 그건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심어서 그런 겁니다. 아무리 좋은 땅이라고 해도 가시나무를 심으면 가시나무가 자라서 찌르지, 과실을 맺겠습니까? 그러므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믿음의 언어를 선포해야 합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찌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마7:16).

언어는 그 사람의 인격이요 내면의 거울이다

목회 초, 대형집회를 앞두고 교역자 회의를 했었습니다. 제가 앞에서 여러 지침을 내리던 중, 현수막과 전단지를 활용해서 광고하라고 지시하는데, 이시대 목사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목사님, 요새는 길에 현수막을 붙이면 구청에서 다 떼어가고, 벌금도 문다고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바로 “너 나가! 왜 부정적인 말을 해서 이 사람들을 물들이는 거야. 왜 의욕을 꺾어?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이시대 목사는 옆의 전도사에게 전해 듣고 제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안 됩니다. 부정에 동의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정은 전염률이 아주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말을 뿌려야 합니다. 믿음의 말은 마음을 바꾸고, 마음은 행동을 바꾸며, 행동은 미래를 바꿉니다.

여러분, 인생은 운명이 아닙니다.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생각과 말로 만들어 가는 작품입니다. 졸작을 만들고 싶은 작가는 없습니다. 내 인생을 졸작 만들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명작을 만들고 싶으시지요? 명작은 긍정적인 생각과 말, 믿음의 생각과 말, 좋은 생각과 말, 미래 지향적인 생각과 말에서 납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한 폭의 명작으로 빚어가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두 함께 큰 소리로 믿음을 선포합시다.

“나는 잘된다! 잘된다. 나는 잘될 수밖에 없다! 왜냐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 객원컬럼 ::

성도의 투쟁

우리의 신앙은 끊임없이 투쟁하고 싸우는 것이다. 그것은 영적인 싸움이다. 눈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현실 문제 자체와 맞부딪혀 싸우려 하지만, 우리는 갖가지 모양으로 시험하고 유혹하여 실족케 하려는 마귀의 꾀계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항상 깨어 믿음으로 대적한다. 이것이 바로 영적 싸움이다. 이러한 싸움을 함에 있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자세는 온유와 겸손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마11:28~30).

세상적인 수고와 무거운 짐을 모두 주님께 맡기고 대신 주님의 마음인 온유와 겸손이라는 멍에를 메라는 것이다. 온유와 겸손은 결코 무력한 삶의 자세가 아니다. 온유와 겸손은 가장 강력한 힘이 된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게 된 것이 가장 좋은 본보기다. 이렇게 볼 때 온유와 겸손은 참된 신앙인의 자세인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 신앙인이 영적 전쟁을 함에 있어서 취할 태도는 세상적인 것과는 전혀 다르다. 신앙인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수적인 우세나 무기의 우세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에 따라 승리가

주어진다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사사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결국 믿음의 사람 3백 명의 군사로 막강한 미디안의 군대를 격파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승리는 군사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에 있었다. 영적 싸움에서의 승리는 세상적인 능력이 철저히 무력해진 그곳에 온전한 신앙심을 가득 채울 때 비로소 주어지는 것이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이 철저히 낮아져서 자신의 무력함을 철저히 하나님께 의뢰했을 때 승리는 주어지는 것이다. 이처럼 영적 전쟁에 승리했을 때 자연적으로 현실 삶의 승리도 주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무력함을 하나님께 겸손히 고백하고 그 가운데 온전히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승리하리라 결단해야만 한다.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온유하고 겸손해져야 한다. 지금까지 남보다 조금 더 배웠다 하여 교만하고, 조금 더 부유하다고 자만하며, 권세와 지위를 앞세워 곤은 목을 자랑한 일은 없는가 돌아봐야 한다.

오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복음의 능력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오직 그분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믿음으로 나타내고 사용해야만 할 것이다.

신기류 목사

:: 신앙논객 ::

사모(思慕)하는 마음

필자는 서울교회가 주일에배를 인천교회에서 드리는 주간마다 아침에 KBS아레나로 넘어가서, 혹시나 예배 장소를 잘못 알고 찾아오신 성도님들께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KBS아레나에 공연이나 행사로 대관 일정이 잡혀있다. 안내를 서다 보면 오후 시간에 있을 공연을 보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와서 하루 종일 줄을 서 있는 관객들을 종종 보게 된다. 더 좋은 자리에서 공연을 보기 위해서 일 수도 있겠지만, 볼 때마다 참 대단하단 생각을 한다.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를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에서 보기 위해 그들은 덥고 추운 날씨나 배고픔까지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다.

하루는 할머니께서 오시길래 우리 성도님이신 줄 알고 안내를 해드리려고 예의 주시하고 있었다(공연장에 오는 관객들은 대부분 젊은 편이다). 그런데 이분은 우리 성도님이 아니셨고, 몇 주 뒤에 있을 어느 트로트 가수의 공연장을 미리 답사하러 오셨다는 것이다. 또 지난 주일 오후에는 KBS아레나 로비에서 주차 인증 봉사를 하고 있는데, 한 할머니께서 오시더니, “여기가 다음 주에 000 가수가 공연하는 곳이죠? 들어가서 좀 둘러봐도 될까요?”라

고 물으시는 것이다. 그리 유명한 가수가 아니었는데도, 그는 가수로서 참 성공했고 행복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어머니뻘 되시는 관객들이 팬으로서 미리 며칠 전부터 공연장에 답사를 와서 둘러보고 갈 정도로 그와 그의 공연을 사모하니까 말이다.

바야흐로 은혜의 계절, 여름이다. 7월 마지막 주에 있는 2026 청소년연합수련회를 시작으로 여름성경학교, 하계산상집회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준비되고 있다. 물론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께서 영·혼·육에 먹을 것과 입을 것, 쓸 것과 거할 곳까지 모든 것에 부족함 없이 채워주실 것이다. 하지만 우리 각자에게 가장 필요하고, 또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은 바로 ‘사모하는 마음’이다. 하나님께로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온전히 만끽하리라’는 그 마음. 이번 여름,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넓히도록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자.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으로 다”(시107:9).

신혁주 전도사

:: 특별기고 ::

신선한 충격

어느 경기든 감독의 역할이 승패를 좌우한다. 감독은 유능한 선수를 알아보고, 가장 적절한 순간에 기용하여 팀을 승리로 이끌어야 한다. 이때 사사로운 감정이나 개인적인 호불호가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 능력 있는 선수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벤치에만 앉혀 둔다면 결국 손해를 보는 것은 팀이다.

옛말에 “들이받는 소가 밭을 잘 간다.”는 말이 있다. 성질이 조금 거칠더라도 일을 잘하는 소라면 그 소를 사용하여 밭을 갈아야 한다.

목회도 마찬가지다. 부교역자가 설교를 잘하고, 사역을 잘하고, 영혼을 살리는 은사가 있다면 기쁘게 세워주어야 한다. 혹시 그가 나보다 더 인정받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결코 손해가 아니다. 그를 통해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면 그것이야말로 목회자의 가장 큰

기쁨이다. 나무가 크게 자라면 그 그늘에 많은 사람이 쉼을 얻고, 나 또한 그 그늘의 덕을 볼 수 있지 않은가.

지도자는 무엇보다 마음이 커야 한다. 작은 마음은 사람을 품지 못하고, 작은 그릇은 큰 인물을 담을 수 없다.

우리 감독이신 예수님을 보라. 예수님은 자신을 팔아넘길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고, 자신을 세 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가 다시 사명을 맡기셨다. 또한 우리에게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며 끝없는 기회를 베푸셨다.

나는 떠났던 제자가 다시 찾아와 사역하고 싶다고 하면 다시 기회를 주신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서는 큰마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 큰 역사를 이루심을 알자.

봉우 이초석 목사



:: 소망의 언덕 ::

영혼이 있는 현장으로!

요즘 ‘다음 세대의 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가득합니다. 사실 많은 교회가 이런 현실을 핑계로 안주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 영적 현장에 서면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최근 교육부 수련회를 앞두고 교사들과 함께 아침 등교 교문 앞으로 노방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드는 10대 청소년들을 마주하고 있으면 숨이 멎는 듯한 탄성이 터져 나옵니다. ‘와, 여전히 이 땅에 청소년들이 이렇게나 많구나! 저 생명들이 모두 주의 성전으로 물려온다면 얼마나 가슴 벅찰까.’

기도와 기대를 품고 현장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 식어가던 비전은 다시 뜨겁게 요동칩니다. 전도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는, 반드시 내가 눈물로 심고 땀방울로 뿌린 그대로 이 땅의 청소년들이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내 눈으로 목도하고야 말겠다는 깊은 결단이 불타오릅니다.

우리 총회장 목사님께서도 한국 교회가 잠시 정체기에 접어들었을 때, 지체 없이 해외 영적 현장으로 눈을 돌리셨습

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올곧게 증거하면, 뜨겁게 응답하며 주님께로 돌아오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바로 그 현장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답은 언제나 현장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 새벽 2시의 노랑진 수산시장에 가보십시오. 캄캄한 밤중에도 삶의 치열한 현장 속에서 사람들은 거친 땀방울을 흘리며 열정을 불꽃처럼 튀기고 있습니다. 육신의 삶을 위해서도 저토록 치열한데, 하물며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맡은 우리는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앞에 영혼의 축제가 다가옵니다. 교육부 각 부서의 수련회를 시작으로, 뜨거운 은혜의 절정이 될 여름산상집회까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적 페스티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생각과 염려에 갇혀 있기보다, 주님이 기다리시는 그 영혼의 현장으로 담대히 걸어 나갑시다. 그 거친 현장에서 땀 흘려 씨를 뿌릴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찬란한 다음 세대의 부흥을 우리 모두가 함께 목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현승 목사

:: 청춘, 그 아름다운 이름 ::

큰맘 먹지 마세요

우울하고 무기력해 집에 오면 아무것도 하기 싫은 적 있나요? 설거지를 며칠째 쌓아둔 적 있나요? 입었던 옷들이 바닥에 나뒹굴고, 뜯지도 못한 택배 상자가 현관에 쌓여간 적 있나요? 큰맘 먹고 치우려 해도 좀처럼 몸이 안 움직인 적 있나요? 어느 팟캐스트에 사연을 올린 5년 차 직장인의 이야기입니다. 번아웃을 겪고 있는 사연자는 지저분한 집에 있으니 더 무기력해지는 것 같다고, 집이 깨끗해지면 기분이 나아질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막상 치우려니 귀찮고,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이렇게 부르더군요. 쓰레기 집.

저 역시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은 날이 있습니다. 여러 프로젝트가 겹쳐 머리를 쉬지 않고 쓰는 기간이 지속되면 정신이 지쳤다는 게 집 안에서부터 표시가 나죠. 솔직히 늦게까지 일하고 집에 와도 벗은 옷을 장롱에 넣을 정도의 체력은 남아있어요. 다만 그걸 해낼 만한 의지력이 없죠. 어떤 날엔 세수할 만한 의지력조차 남아있지 않아 씻지도 않고 소파에 누워 멍하니 유튜브 쇼츠를 보다 잠든 적도 있습니다. 평소 청소를 좋아하는 저는 십수 년째 매주 토요일 오전마다 하는 루틴이 있습니다. 모든 창문을 열고 매트리스 커버와 이불 커버를 벗겨 세탁기에 넣고 지난주에

빨아 놓은 커버로 교체하죠. 작은 방, 주방, 안방, 거실 순으로 청소기를 돌립니다. 아침 식사하면서 쓴 식기를 설거지하고 싱크대 배수구까지 반들반들 닦고요. 그사이 세탁이 완료되면 베란다에 널고, 물걸레 청소기가 방바닥을 닦는 동안 느긋하게 넷플릭스를 시청합니다. 시계를 보면 오전 11시도 안 됐어요. 깨끗하고 단정한 집에서 보내는 모든 시간이 저에겐 최고의 힐링입니다.

그럼에도 정신이 지친 날엔 루틴이고 뭐고 다 건너뛰고 온종일 누워 빈둥대죠. 금세 어질러지는 곳은 주방이에요. 싱크대엔 밥풀이며 반찬, 기름 묻은 그릇들과 과일 껍질이 뒤엉키고 삼겹살 구운 프라이팬과 인덕션 주변으론 기름이 덕지덕지 묻어있죠. 반찬통과 도마, 채소들이 밖으로 나와 있고 그 옆엔 다 먹은 과자 봉지들이 굴러다닙니다. 먹기만 하고 치우지 않은 흔적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죠.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지쳐 있으니깐요. 이럴 때 쓰는 저만의 마법이 있습니다.

절대 한꺼번에 치우려 하지 않기. 한 번에 딱 하나씩만 아주 자잘하게 치우기. 이권 숨쉬기만큼이나 에너지가 들지 않죠. 방법은 이렇습니다. 화장실 가려고 일어난 김에 딱 하나만, 과자 봉지를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화장실에서 나와 거실로 가는 김

에 딱 하나만, 냉장고를 열어 채소를 넣습니다. 물 마시려고 일어난 김에 딱 하나만, 개수대에 흠어져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한 곳에 모읍니다. 한 시간 뒤, 화장실 가려고 일어난 김에 딱 하나만, 키친타월로 프라이팬 기름을 닦습니다. 그러다 보면 설거지하기 수월하게 정리된 주방을 마주하게 되죠.

한 시간이면 끝낼 설거지를 열 시간에 걸쳐서 하는 셈이죠. 한심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소진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날엔 이토록 자잘한 정리가 꽤 힘을 발휘합니다. 오랜 시간 무기력에 시달려 어질러진 방에서 은둔한 청년에게 전문가가 내린 처방은 하나였다고 해요. “서랍 한 칸만 정리하세요. 절대로 모든 서랍을 정리하지 마세요. 책상도 치우지 말고요.” 힘을 그러모아 서랍 한 칸을 겨우겨우 정돈한 청년은 커다란 성취감과 개운함을 느꼈대요. 그러자 서랍장 다음 칸을 정리할 힘이 생겼다고 합니다. 더러운 공간에는 무기력과 우울이 깃듭니다. 그리고 귀신도요.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셨죠. 더러운 공간을 깨끗하게 치우는 일은 그 자체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입니다. 마음이 지치셨나요. 청소하려고 큰맘 먹지 마세요. 그저 아주 조금씩 자잘하게 해보는 겁니다.

신은혜

:: 치우치지 않는 저울 ::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그분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엡 3:20)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축복의 문을 열기 위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1. 기도로 영적 토양을 기경(起耕)하십시오. 축복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준비된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하루는 시끄러운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 집중하며 마음의 밭을 일구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엡 3:3).
2. 믿음의 선포로 문을 여십시오. 입술의 고백에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애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은혜를 내일 부어주실 것을 미리 감사하며 선포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은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

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기록합니다. 빛을 입에 가두지 마시고 선포하십시오. 기도 후 자녀들에게 마음껏 축복합니다. ‘아비, 어미가 기도하니 2026년에는 잘될 것이다!’ 주위 사람에게 내 계획과 축복을 선포하십시오. 요셉이 꿈을 이야기했을 때 고난이 따라왔지만, 이 고난은 총리가 되기 위한 필수 과정이었습니다. 두려워 말고 전화위복(轉禍爲福)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3. 성결함으로 거룩함을 회복하십시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 백성들에게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명했던 것처럼, 큰 기적 앞에는 늘 성결이 선행됩니다. 혹여나 마음속에 남아있는 작은 쓴 뿌리나 죄의 모양이 있다면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시길 권면합니다.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전화로 먼저 손을 내미시고 축복의 준비를 합니다. 100억 원을 받은 사람이 10만 원 빚진 것 안 갚았다고 속상할 수는 없듯이(마 18

장), 믿음의 은혜로 용서하십시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마 18:35). 4. 육신의 강건함도 함께 챙기십시오. 큰 사역과 축복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뿐만 아니라 육체의 건강도 매우 중요합니다. 체력은 영력입니다. 성도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여정의 끝에,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을 것을 믿음으로 함께 바라봅니다. 내일 맞이하게 될 그 승리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 은혜의 간증을 고백할 설렘으로 오늘 하루를 보내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의 여정에 함께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엡 3:20~21). 아멘! 최연식 목사

:: 참된 깨달음 ::

고3의 교회 수련회

큰아이가 올해 고3 수험생이다. 지금껏 아이를 키워오면서 공부를 못한다고 혼낸 적은 한 번도 없다. 혼낸다고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나는 내 경험을 통해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시험이 월요일부터 시작하더라도 교회 예배가 우선이라고 가르쳐 왔고, 아이도 그 가르침을 잘 따라주었다. 이제 수능이 석 달 정도 남은 시점, 마지막 노력을 쏟아부어야 할 때가 되었다.

며칠 전, 교회 수련회 참석을 위해 학교 자율학습을 사흘 빠지겠다는 아이에게 선생님은 “고3이 꼭 전남 장성까지 수련회를 가야 하니?”라고 되물으셨다고 한다. 순간 내 마음 한편에서도 ‘고3이면 그냥 공부나 하지...’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유치부 때부터 고2까지 한 번도 수련회나 캠프를 빠진 적이 없으니, ‘이번 고3 마지막 수련회는 한 번 정도 쉬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인간적인 생각이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이내, ‘이 아이는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아이의 진로와 성적은 물론 인생까지도 책임지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주실 거야.’라고 마음을 고쳐 먹었다.

수련회에 가서 하나님께 마음껏 부르짖고 기도하면, 공부로 얻는 결과 이상으로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다. 12년간 성실히 공부해 온 과정이 대입의 결과로 나타나듯이, 우리 신앙생활의 결과는 마지막 날에 주어질 구원과 하늘의 상급으로 드러난다. 대입이라는 시점만 바라보면 3일의 공부 시간이 아쉬울 수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사흘은 아이의 인생을 변화시킬 값진 시간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혹시 자녀를 수련회에 보내는 것이 고민인 성도님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그분의 자녀를 그분이 베푸신 잔치에 보낸다고 생각해보시기를 소망해본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잠 22:6).

송명국 집사

2026 하계산상집회

- * 첫째 주 8월 3일(월)~6일(목)
- * 둘째 주 8월 10일(월)~13일(목)
- * 장성 예루살렘기도원
- * 문의 : 02. 533. 9191

* 호텔예약

- 첫째 주: 7월 20일(월) 오전 10시
- 둘째 주: 7월 21일(화) 오전 10시
- 교회 홈페이지(www.jcc.tv)



서울 인천 연합 여름 캠프

- * 날짜 : 8월 2일(주일)~4일(화)
- * 장소 : 인천예수중심교회
- * 문의 : 02. 533. 9191(지교회는 본부로 연락)